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공급망, 일본】 日자동차 부품회사, 국내로 회귀 움직임 확산

【배터리, 테슬라】 테슬라, 美IRA 혜택 위해 '독일 배터리 생산 계획 축소, 미국 생산 확대 추진'

【리튬, 중국】 中 신장유색금속공업그룹(新疆有色集团), 세계 최대 규모 리튬 프로젝트 가동

【원자력, 세계】 프랑스 등 11개 회원국,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위한 '원자력 연합' 결성

【핵심광물, 유럽】 유럽, '핵심광물 구매기관' 신설 추진

【농산물, 영국】 영국, 농산물 공급난에 '채소 구매 제한'

【밀, 인도】 인도, 122년 만의 폭염으로 밀 수확 타격

【원자재, EU】 광산업계, EU 공급망실사법 시행 시 반사이익 기대

【반도체, 미국】 美반도체 부품장비기업 MSK, 랜섬웨어 피해로 공급망 차질 우려

※ 제50호는 한주 휴간 후 3.23(목)에 발간됩니다.
- 후기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GVC 뉴스 더하기

- ① 美 반도체 보조금 지원 계획·가이드라인 발표
- ② 美 배터리 산업 육성 관련 보조금 지급 동향
- ③ 리파워EU, 에너지 전략에 200억 유로 기금 투입 전망



GVC 돌보기

국가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



GVC 전문가

러-우 전쟁 1주년, 주요국 영향 분석



GVC 소식통

- ① 공급망 관련 KOTRA 지원 사업 안내
- ② GVC 인사이트 제50호 발간 기념 이벤트 안내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최신 GVC 해외 이슈

■ 【공급망, 일본】 日 자동차 부품회사, 국내로 회귀 움직임 확산

- 日 자동차 기업, 인건비* 등 생산비가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일본으로 생산시설 회귀 중
 - * 日 평균임금 '01년-'21년 사이 3% 인상(38,400달러 → 39,700달러), 동 시기 OECD 회원국 평균임금 상승률 : 18%
- 유압기기 대기업 KYB, 인건비 상승으로 일부 부품 생산시설을 북미에서 日기후현으로 이전
- 계기·센서 생산기업 일본정기, 비용 문제로 기기용 소프트웨어 설계 업무 일부 일본 이관 추진
 - * 2023년 1월 개발 거점을 니이가타시에 신설, 아키타현·이와테현 거점 구축 추진
- 자동차용 시트 생산기업 타티에스, 중국 內 생산 감축하고 '23년 내 日생산 비율을 30%에서 35%까지 올리고자 함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자동차 해외 생산의 이점도 존재하지만, 다수 부품 대기업은 '공급망 리스크·해외 인건비 상승·환율 변동' 등을 감안하면 일본 국내 생산이 안정적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인플레이션으로 일본에서도 임금 인상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 日유턴으로 인한 비용감축 효과는 한정적이라는 목소리도 존재

출처: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 【배터리, 테슬라】 테슬라, 美IRA 혜택 위해 '독일 배터리 생산 계획 축소, 미국 생산 확대 추진'

- 테슬라, '22.3월 독일에 배터리 공장을 완공하고 '23년에 양산할 계획이었으나, 美IRA 혜택 위해 미국 생산 확대 결정
 -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테슬라가 2.22일 성명 통해 베를린 인근 공장에서 배터리 완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중단하고 미국에서 생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
- 테슬라, '23년 1월 미국 네바다주 기가팩토리 인근에 36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전기 트럭·4680배터리*를 생산하겠다는 계획 발표
 - * 지름 46mm·길이 80mm 신형 리튬이온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중 가장 크고 기존 배터리 대비 용량 5배·출력 2배
 - 로이터,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에서도 4680배터리 셀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전함

출처: 연합뉴스(2.22)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리튬, 중국】 中 신장유색금속공업그룹(新疆有色集团), 세계 최대 규모 리튬 프로젝트 가동

- 신장자치구 국영기업 신장유색금속공업그룹, 2.26일 허토펬(和田)시에서 채광·선광·제련을 통합한 리튬 사업장 건설 기공식 개최
 - 1기 프로젝트는 2023년 완공 목표로, 연 7.5만 톤의 리튬 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용 이차전지 회사 등에 공급할 예정
 - * 탄산리튬 3만 톤, 수산화리튬 3만 톤, 염화리튬 1.5만 톤
 - 향후 증설 통해 연 생산량을 10만 톤까지 확대할 예정
- 관계자는 "해당 프로젝트는 신장유색금속공업그룹이 진행하는 연 300만 톤 규모 리튬 원광석 가공공정 계획*의 일부분으로, 전체 공정이 완공되면 매년 60만 톤의 리튬정광이 생산될 것"이라고 언급

출처: 中 매체 시나재경(2.23)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원자력, 세계】 프랑스 등 11개 회원국,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위한 '원자력 연합' 결성

- EU 11개 회원국은 2.28(화) 유럽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원자력 연합 (Nuclear Alliance)' 결성을 발표함
 - 유럽 원자력산업 공급망 전반, 소형 원자로를 포함한 새로운 원자력발전 역량 확대 기술 등의 분야에서 상호 밀접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이른바 '유럽 원자력 연합'을 구성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
 - 11개 회원국은 원자력 에너지가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기초 전력 생산 및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유럽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을 공동으로 재확인
- 프랑스 에너지 전환부 장관은 공동선언문 협의 과정에서 원자력산업 혁신 및 모듈형 소형 원자로 (SRM), 기술력, 신규 발전소 허가 등이 중요 핵심 사항으로 부각되었다고 설명
 - 한편, 원자력 연합 참여가 예상되던 이탈리아는 최종적으로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거부, 스웨덴은 EU 이사회 의장국으로써 중립적 입장 견지를 위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음
 - 다만, 지난 1월 스웨덴과 프랑스 간 정상회담에서 풍력, 수력 및 화석연료를 배제한 안정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약속하였기에 추후 원자력 연합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출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3.3.2)

■ 【핵심광물, EU】 EU, '핵심광물 구매기관' 신설 추진

- 로이터 통신은 EU가 오는 14일 발표예정인 EU 핵심광물원자재법(CRMA)에 원자재 확보를 위한 중앙기관인 '유럽 핵심원자재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 보도
 - 신설되는 기관은 회원국 간 조율을 통해 역내에서 최소 10%의 원자재를 생산하고, 원자재를 기반으로 필요한 전력물자 수요의 최소 40%가량을 역내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초안에는 핵심 원자재 관련 원자재 처리 공장 등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절차 및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출처 : 연합뉴스(23.3.8), 로이터(23.3.8)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농산물, 영국】 영국, 농산물 공급난에 '채소 구매 제한'

- 영국에 채소 공급난이 지속되며 영국 식료품 유통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슈퍼마켓 체인 6개 중 5개가 소비자들의 채소 구매를 제한함
 - 구매 제한을 둔 슈퍼마켓 체인은 테스코(Tesco), 아스다(Asda), 알디(Aldi), 모리슨즈(Morrisons), 리들(Lidl)로 6개 슈퍼마켓 중 유일하게 구매 제한을 두지 않은 세인스버리(Sainsbury's) 또한 채소 공급이 부족한 상황
 - 영국 농업 단체인 '레아 벨리 재배자 협회(LVGA)'의 리 스타일스 사무국장은 "영국에 들어오고 있는 모든 식료품의 양이 예상 수입량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라며 "5월까지의 토마토, 고추, 가지가 대량 유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영국 정부는 채소 공급망 문제에 대해 "최근 스페인과 북아프리카에 눈서리가 몰아치며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라고 설명함
 - FT에 따르면 영국은 농작물을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 노동력 부족과 더불어 현재 기후변화 및 코로나 등으로 야채 품귀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마크 스펜서 식품농업부 장관은 주요 슈퍼마켓의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채소 공급난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농민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함

출처 : 국민일보(23.2.28), FT(23.3.1)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밀, 인도] 인도, 122년 만의 폭염으로 밀 수확 타격

- 타임스오브인디아, 3.1일 인도 기온 평균치가 1901년 기상 관측 이후 최고인 29.54℃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인도는 통상 3월부터 기온이 올라 5월에 정점을 찍고 6월 우기가 시작되면 기온이 낮아지는데, 2월부터 이상 고온이 나타나면서 열에 민감한 밀 재배에 악영향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 2.28일에 발표한 '3월 국제곡물 관측'을 보면 2023년 인도 밀 생산량은 전년 대비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한국의 對인도 밀 수입량은 많지 않고, 제분용은 미국·호주·캐나다, 사료용은 우크라이나·미국·러시아에서 주로 수입(2020년 기준)

출처: 농민신문(3.1), 뉴스트리(3.2)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원자재, EU] 광산업계, EU 공급망실사법 시행 시 반사이익 기대

- 노르웨이 광산기업 노거 마이닝(Norge Mining), 유럽 탄소·흑연협회(ECGA) 등 유럽 광산업계는 'EU 공급망실사법'을 긍정적으로 평가
 - EU 광산업은 이미 높은 환경·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역외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ESG 포함 종합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됨
- 한편, EU 기계 산업계의 거센 반발로, 공급망실사법 입법 추진 난항
 - 독일기계설비공업협회*, 2.20일 독일 정부에 유럽의회에서 논의 중인 공급망실사법 시행 저지 촉구
 - * 독일기계설비공업협회는 독일에서 가장 큰 산업협회 중 하나로 3,500여 개의 독일 중견기업 대표
 - 공급망 실사법은 EU 집행위의 '22년 2.23일 집행위 제안 후 유럽의회 內 논의 중

출처: Euractive(2.24)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반도체, 미국] 美반도체 부품장비기업 MSK, 랜섬웨어 피해로 공급망 차질 우려

- 미국 글로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MKS인스트루먼트의 '랜섬웨어' 피해가 전 세계로 확장
 - MKS는 지난달 3일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생산시스템과 주요 소프트웨어 등에 피해를 입어 일부 생산시설이 중단되었으며,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진행 중
 - 회사는 레이저, 진공 시스템 등 반도체 제조 기초단계에 쓰이는 특수 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통상 반도체업체들이 이 같은 특수장비는 공급업체 한곳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대체재가 마땅치 않은 상황
- 랜섬웨어 피해로 인한 정상화 작업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반도체 공장에도 차질이 예상되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 측은 "현재까지의 영향이 크지 않으며 안전재고 보유로 생산 중단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전문가들은 현재 반도체 시장은 수요 하락에 따른 공급과잉의 상태이기에 MKS의 공급 지연이 업계에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

출처: 중앙일보(23.3.1), FT(23.3.1)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GVC 뉴스더하기 ① : 美 반도체 보조금 지원 계획·가이드라인 발표

◆ 美 상무부는 2.28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보조금 세부(안)을 발표했는데 '1.5억 달러(약 2천억원) 이상 수혜를 받는 기업은 연방 정부에 초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美 상무부, 반도체 보조금 지원계획 및 가이드 발표

- 美 상무부, 2.28일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총 527억 달러) 중 **상업용 제조시설 지원(390억 달러)** 계획인 '성공을 위한 비전(Vision for Success)' 발표
 - (지원 절차) 신청 의향서(SOI) 제시, 사전·정식 신청서 접수, 검증 자료 제출, 보조금 수령
 - * 신청 절차의 첫 단계인 '신청 의향서(SOI)'는 2.28일부터 접수 가능
 - (지원 일자)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지원 신청서는 3.31일, 現세대·성숙노드 반도체 및 후공정 제조시설 지원 신청서는 6.26일부터 제출 가능
 - * 반도체 재료·장비 시설, R&D 시설 지원방안은 각각 '23년 늦봄과 가을 발표 예정
 - (지원 규모) 사업비의 5~15% 수준 지원 전망, 35%를 상한으로 제시
 - (주요 내용) "① 경제·국가 안보 ② 상업성 ③ 재정 건전성 ④ 기술 역량 ⑤ 노동 환경 조성 ⑥ 미국에 대한 기여" 6개 기준 고려하여 선발

심사 기준	주요 내용
경제·국가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세계 공급망 강화 여부 •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 증진 여부
상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된 투자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장을 장기간 운영 여부 •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 수입률 등 수익성 지표 제출
재무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흐름과 수익이 전망치 초과 시 미국 정부와 초과이익 일부 공유* * 지원금 1억 5천만 달러(약 2천억원) 이상 수령 기업 기준 - 상무부는 '이익 초과분 공유'는 이익이 전망치를 현저하게(significantly)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하며, 초과이익 공유분이 지원금의 75%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기술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기술적 가능성 여부 • 기업이 공장을 지을 준비가 되었는지 • 환경 등 관련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지
인력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들의 숙련도와 다양성 확보 • 공장 직원과 건설 노동자에 보육 서비스 제공* * 지원금 1억 5천만 달러(약 2천억원) 이상 수령 기업만 해당
사회 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미래 투자 의지와 지역사회 공헌

■ 美 현지 반응, 보조금 수혜기업을 활용해 국방·육아 등 美 내부 현안 해결에 집중

- (국방·보안) "미국은 첨단 반도체 수요의 90%를 대만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만-중국 전쟁 발발時 공급처를 상실할 수 있다"며 '반도체 지원법' 높게 평가 (월스트리트저널)
- (육아) 러몬도 상무부 장관, "향후 10년간 여성 100만명을 추가로 고용·훈련해 반도체 및 기반시설 산업에 종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반도체 제조사·건설사 등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 (뉴욕타임즈)
 - * 1억5,000만 달러 이상 보조금 수령 기업은 '품질 높은 보육 시설' 설치가 의무화됨

■ 반도체 보조금 지급 관련 '가드레일 조항' 모니터링 필요

- '美 반도체 보조금 지원계획·가이드라인'에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은 포함·공개되지 않음
 - 보조금 수령 기업은 향후 10년간 對중국 반도체 시설 투자 등을 제한하는 협약을 美정부와 맺어야 함
 - 가드레일 조항에 구체적인 '제한' 사항 명시 예정

GVC 뉴스더하기 ② : 美 배터리 산업 육성 관련 보조금 지급 동향

◆ 미국은 2021년 제정된 인프라 투자법에 따라, 5년간 배터리 산업 육성 용도로 60억 달러를 배정하였고, 2022년 10월 배터리 관련 20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총 28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동향 및 2023년 보조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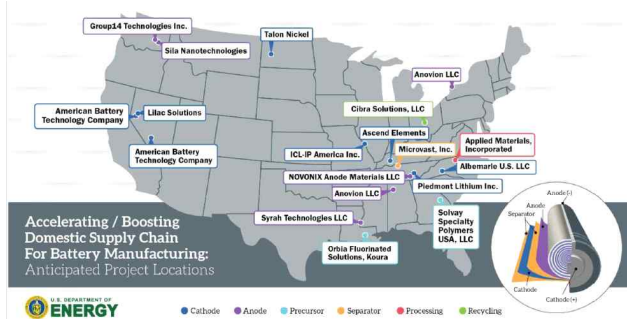
■ 美 배터리 산업 육성 보조금 규정

- '21년 제정된 인프라 투자법(Infrastructure Investment&Jobs Act)에 따라, 5년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연방 보조금 예산 60억 달러 책정
 - 에너지부(DOE)가 집행을 주관하는 배터리 관련 보조금은 크게 ① 배터리 제조 및 재활용 ② 배터리 소재 가공(Material Processing) 분야로 구분
 - 분야별로 '22~26 동안 연간 6억 달러씩, 각각 30억 달러 집행 예정
- * 수혜 대상은 ① 고등 교육기관, ② 국립 연구소, ③ 비영리·민간 영리 기업, ④ 주·지방 정부, ⑤ 기타 공공-민간 컨소시엄

■ '22년 에너지부 배터리 보조금 지원 사업 현황

- 에너지부, '22.10월 배터리 관련 20개 프로젝트를 선정, 총 28억 달러 보조금 지원 결정
 - 28억 달러는 전체 60억 달러 보조금 예산 중 첫 번째 단계로, '배터리 소재 가공·기타 시범 사업'에 집중
 - 어센드 엘리먼트스·6K·앨버말·암피루스·아메리칸 배터리 테크놀로지 컴퍼니·코우라·탈론 니켈·솔베이 스페셜티 폴리머스·마이크로베스트 등 부품제조(양·음극재), 소재분리·가공(전구체·음극광물 등), 재활용 회사들이 '22년 배터리 보조금 수혜

〈'22년 연방 배터리 보조금 수혜 사업 분포〉



[자료 : 미국 에너지부]

■ '23년 이후 배터리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23년 지원을 위해 에너지부는 공지를 통해 보조금 신청서 접수 예정
 - 에너지부 배터리 관련 보조금 기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www.energy.gov/energy-storage-grand-challenge/funding-opportunities>)
- 보조금 지급 심사에 유리한 자격 고려 필요
 - 에너지부는 다음의 경우에 보조금 수혜자 선정에 가점 부여
 - * ① 소외지역 및 농어촌 지역 고용 기회 ②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피해 본 지역 지원 ③ 대학연구소 등과 사업 협업 ④ 기술 혁신과 비용 절감 수준 ⑤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 절감 효과 등
 - 보조금 신청기업에 최소한 정부 지원액만큼의 투자 분담 요구
 - * '22년 보조금 수혜 사업 전체에서 정부 보조금의 최소 100~200%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

**GVC 뉴스더하기 ③ : 리파워EU, 에너지 전략에 200억 유로 기금 투입 전망**

◆ 경제회복기금 집행 계획에 '리파워EU 전략'을 반영하기로 하여, EU의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 및 친환경 발전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우선 회복·복원력 기금' 내 200억 유로를 리파워EU 추진에 투입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 EU, 회원국별 경제회복기금 집행 계획에 리파워EU(REPowerEU) 반영 법제화

- 2.21일 이사회 승인 이후 EU 기관 간 법안* 최종 채택 완료, 2.29일 발효**

* 입법 경과 : EU집행위, 회복·복원력 기금 수정법안 상정('22.5.18)→ 회원국 잠정합의('22.12.14) → 유럽의회 본회의 승인('23.2.14) → 이사회 승인(2.21) → 관보 게재(2.28) → 발효(2.29)

** 리파워EU 취지를 회복·복원력 기금(RRF)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으로 EU 이사회 최종 채택 후 2.28일 관보 공표

- 규정 원문 : Regulation 2023/435 amending Regulation (EU) 2021/241 as regards REPowerEU chapters in recovery and resilience plans

- 동 규정에 따라 EU 각국은 회복·복원력 기금의 국별 계획 내에 동 전략 챕터 삽입, 원활한 이행 위한 조치 마련 예정

〈리파워EU·회복·복원력 기금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리파워EU (에너지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對러 에너지 의존도 감축 및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 전략 * 집행위는 법 개정 또는 신규 법 제안을 통해 동 전략을 역내 정책에 반영 중 • (주요 내용) 에너지 소비 감소, 공급망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소비감소) '30년 에너지소비량 13% 감축(20년 대비), 고효율 난방·단열재에 인센티브 - (공급망 다변화) EU 에너지 공동구매 통해 공급난 대비, 역외국들과 친환경 에너지 기술협력 통해 수입 안정성 확보 -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40%→45%), 수소개발, EU 태양광 발전량 확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지원 등
RRF (회복·복원력 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069억 유로 규모의 유럽경제회복기금(NGEU) 중 핵심 기금(전체의 90%) • 회원국, '코로나19 회복, 그린딜·디지털 전환' 위한 계획 수립,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국가 간 프로젝트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200억 유로 투입 전망

- (재원운용) 회복·복원력 기금 내 200억 유로 추가 예산을 리파워EU 위해 투입하고, '회원국별 기여액·EU 기금' 일정 부분 활용 가능

- EU-탄소배출권거래제도(EU-ETS) 수익 80억 유로 및 혁신기금(Innovation Fund)에서 120억 유로 조달, 각 국별 예산 기여액 중 7.5%까지 사용 가능

- (지원범위) 총 지출의 최소 30%는 다국가 차원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하며, 에너지 취약계층 (중소기업·가정 등)에 우선적 지원 노력

- 시행 기간은 '22.2.1일(소급적용) ~ '26.8.31일
- (기타) 전략 이행과정에서 다른 EU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DNSH 원칙(Do No Significant Harm)' 적용

GVC 돋보기 : 국가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

◆ 산업부는 2.27일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내 광물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였다. **핵심광물 선정과 글로벌 광산지도·수급지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 보도자료 및 상세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

■ 핵심광물 확보 필요성

- 우리나라는 **전체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핵심소재를 특정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40년 핵심광물 수요(IEA, '20년 대비) : 리튬 42배, 코발트 21배, 니켈 19배, 희토류 7배

● 핵심광물은 특정국에 **매장·생산이 집중***, 대체재 확보가 어려워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

* 글로벌 생산 점유율('21) : 희토류(중국 60%), 텅스텐(중국 84%), 코발트(DR공고 71%) 등(美 USGS)
중국은 리튬·니켈·코발트·흑연 등 이차전지 산업 핵심광물 공급망(채굴→정제련→제조→수요) 장악

●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내 광물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

■ '핵심광물 확보전략'(2.27일 산업부 장관 발표) 주요내용

①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 선정**, 10대 전략 핵심광물 집중 관리 추진

- 가격·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 등 **공급리스크**와 **국내 경제적 영향**(국가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원료광물 등) 등을 평가하여 총 33종 선정

< 33종 핵심광물 >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 니오븀, 구리, 알루미늄, 규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바나듐, 백금족(2종*), 주석, 타이타늄, 텅스텐, 안티모니, 비스무스, 크롬, 연, 아연, 갈륨, 인듐, 탄탈륨, 지르코늄, 스트론튬, 셀레늄

* 희토류(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 백금족(백금, 팔라듐)

- 전기차·이차전지·반도체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 선정

< 10대 전략 핵심광물 >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 - 연구자석 :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 반도체 연마제 : 세륨, 란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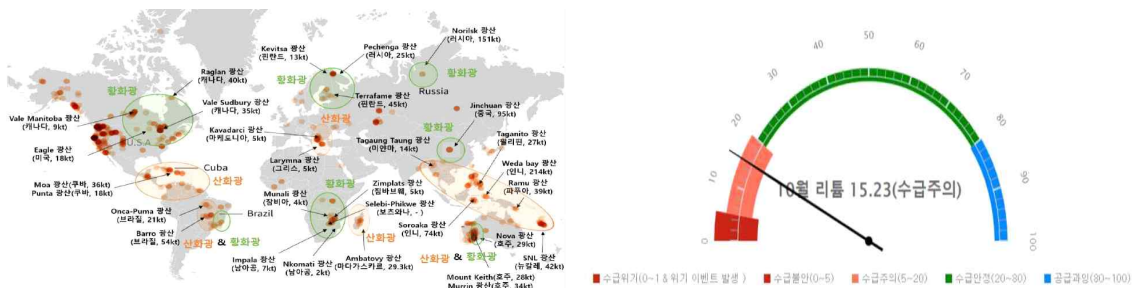
②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Map)**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 **희소금속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

- 글로벌 광산 프로젝트 분석을 위한 **단계별(탐사·개발·생산) 광업권 매장량, 인프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지도와 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 분석·이해 제고를 위한 **국가별·광종별 생산·수출입** 등 정보를 담은 지도 개발

- 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비스*(KOMIS) 고도화하고 **핵심광물 수급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국가별 광물 부존현황, 가격, 기업의 투자동향 등 정보제공(2001년부터 서비스 제공)

<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안정화지수 (예시) >



- 현재 비축중인 19종(28품목), 54일분량을 '31년까지 20종(35품목*), 100일분으로 확대
 - * 희토류 등 특정국 의존도, 공급위험이 높은 품목은 180일 이상 비축
 - 또한, 비축 광물의 방출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단축(現60→30일)하고, 긴급방출 제도를 도입하여 긴급 상황시 8일내 수요기업에게 인도
- ③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강화
 -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실패시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및 해외자회사 배당금 세부담 완화 추진
 -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시설·수입자금 등에 대해 여신 및 보험지원 (수출입은행(대출·보증), 무역보험공사(보험) 정책자금 활용)
- ④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를 목표로, 폐자원을 핵심광물 원재료로 재활용하는 체계 마련, 재자원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
 - 원료확보를 위한 사용후배터리 회수·유통·활용 등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재자원화 (정·제련 포함) 실증을 위한 공동이용 설비를 제공하여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실증센터 구축 추진
 - 핵심광물 정제련·소재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재자원화 자원을 유통·비축으로 연계하고, 재생원료 사용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소재·부품·제품 내 재자원화 원료함량 정보제공(해외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 재자원화 소재·가공 업체 용자지원 신규 도입 및 재자원화 관련 기술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지정 검토
- ⑤ 핵심광물 부국과 자원외교 활성화 등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진출 지원
 - 핵심광물 10종 관련 글로벌 공개 프로젝트 및 다자협력체 제안 프로젝트를 500여개를 대상으로 공공이 1차 사업타당성(경제성, 전략성, 국가 리스크) 평가 후, 110개 프로젝트를 민간기업에 투자연계
 - 핵심광물 수요기업 대상, 110개 프로젝트 사업설명회 개최('23년~)
 - 개발매력도, 접근가능성, 협력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전략협력국 선정, 국가별 투자전략을 마련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MOU체결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장기공급계약 체결 및 광산 투자 지원
 - FTA 신규·개정 협상 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강화 내용(공동연구, 정보교류, 무역원활화 등) 반영 추진
 - 광물안보파트너십(MSP),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
 - ESG 요소를 고려한 유망프로젝트 선정 → 국내 참여기업에 공유 → 투자 애로 발굴 및 지원 → 우리기업 광물 확보
 - 동맹국과 공동 투자 시, 우리기업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자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지원
- ⑥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를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
 -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를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타당성 검토 후, 민간기업 투자로 연계 (신규사업 발굴, 직접 탐사 및 결과 도출 등을 거쳐 민간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⑦ 핵심광물 산업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 전문인력양성, 친환경 선풍·제련 고도화와 핵심광물 대체재 기술개발도 강화

☞ '30년까지 현재 리튬, 코발트, 흑연 등 80%대인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 목표



GVC 전문가 : 「러-우 전쟁 1주년, 주요국 영향 분석」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도원빈, 최수빈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러-우 전쟁이 주요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편에서는 ①경제성장률(GDP), ②물가, ③금리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경제적인 영향을 분석해보자.

〈 러-우 영향 시리즈 〉

(49호) 경제적 영향

(50호) 원자재 영향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해 세계 실질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을 1.0%p 하회

- 2022년 글로벌 실질 GDP는 러-우 전쟁 이전에는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23.2월) 기준 추정치는 3.4%로 당초 전망 대비 1.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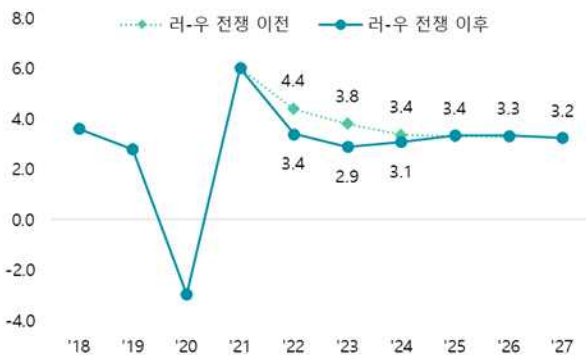
● '22~'25년 기간 동안의 누적 세계 실질 GDP 성장 감소분은 2.3%p에 달할 것으로 추정*

* 2022년~2025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2025년 글로벌 GDP는 15.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러-우 전쟁 이후에는 13.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음

- 한편 한국의 성장률 조정폭은 $\Delta 0.4\text{p}$ 에 불과해 세계 평균 대비 선방하였음

〈 러-우 전쟁 전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 〉

(전년비 %)



자료 : IMF, 실질 GDP 증가율 기준

〈 지역·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

(전년비 %)

구분		2022	2023	2024
선진국	기존전망	3.9	2.6	1.7
	이후전망	2.7	1.2	1.4
신흥국	기존전망	4.8	4.7	4.5
	이후전망	3.9	4.0	4.2
한국	기존전망	3.0	2.9	2.6
	이후전망	2.6	1.7	2.6

자료 : IMF, 실질 GDP 증가율 기준

■ 2022년 전 세계 소비자물가도 러-우 전쟁 이전 전망 대비 4.6%p 상승

- 2022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8%로 러-우 전쟁 이전 전망치(4.2%) 대비 4.6%p 높았으며, 유로존(5.3%p), 영국(4.4%p), 미국(3.2%p) 등 주요국 모두 기존 전망 대비 물가가 크게 상승

- 한편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 조정폭이 3.0%p로 주요국 대비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주요지역의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

(%, %p)

	유로존	영국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세계
전망치(a)	3.1	4.7	4.8	2.2	0.8	2.3	4.2
실제값(b)	8.4	9.1	8.0	5.1	2.5	2.0	8.8
차이(b-a)	5.3	4.4	3.2	3.0	1.7	$\Delta 0.3$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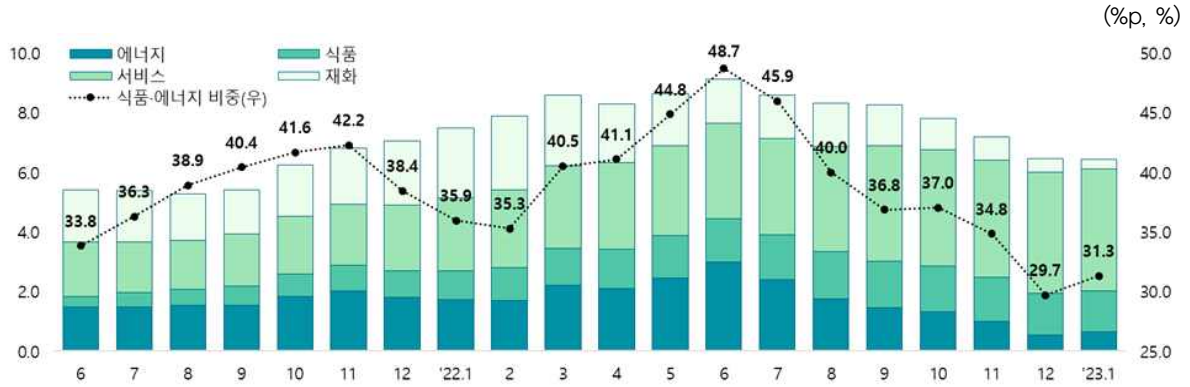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주 : 전망치는 '22.2월 당시 주요 IB 전망치의 중간값, 모든 수치는 반올림 값

■ 물가 상승은 러-우 전쟁 이후 에너지와 식품 등 원자재 가격급등에 기인

- 2022년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비 9.1% 상승하며 41년 만에 최고치 기록(이전 최고치는 1981년 11월 9.6% 상승했을 때임)
- 요인별로 보면 에너지(3.0%p), 식품(1.4%p) 상승분이 전체 상승(9.1%)의 48.7%를 차지하였음
- 3분기 이후로는 원자재 가격상승이 여타 재화와 서비스 가격에 전가되면서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요인이 30%대 수준으로 하락

〈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요인별 분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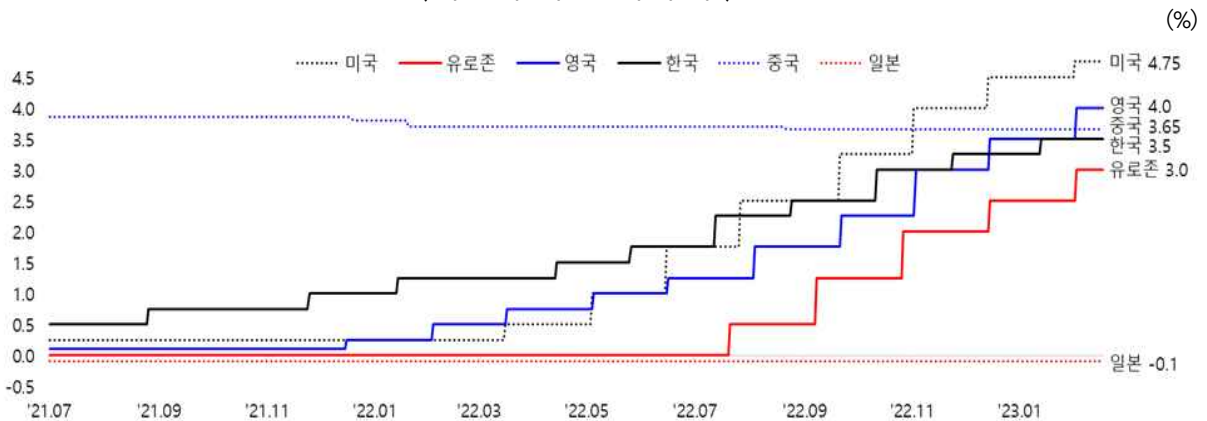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유럽, 영국, 한국 등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세계경제 하방 압력이 가중

- 美 연준은 기준금리를 2021년 7월 0.25%에서 현재 4.75%까지 인상했으며, 3월중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¹⁾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는 5% 수준 예상
- 분기별 기준금리 전망²⁾(%) : ('23.Q2)5.0→(Q3)5.0→(Q4)5.0→('24.Q1)4.5→(Q2)4.0→(Q3)3.63→(Q4)3.38
- 동기간 영국(0.1%→4.0%), 한국(0.5%→3.5%), 유로존(0.0%→3.0%)도 기준금리를 인성한 반면, 일본은 △0.1% 유지, 중국은 대출우대금리(LPR,1년)를 3.85→3.65%로 인하

〈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



자료 : Bloomberg

1) Reuters(2023.2.17), "Fed officials say more rate hikes key to reducing inflation"

2) Bloomberg, 2023.2.17. 기준 주요 IB 전망치들의 중간값



GVC 소식통 : 공급망 관련 KOTRA 지원 사업 안내

■ [세미나] 2023 인터배터리 연계 해외 시장동향 세미나

-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시장 현황 및 지역별 비즈니스 협력 기회 소개 세미나

- 일시/장소 : 3.15(수) 14:00~17:00 / 코엑스 D홀 Battery Stage B
- 참가규모 : 해외연사 8여명*, 참가자 100여명
* 주요연사: 유럽·미국지역 협회 및 씹크탱크, 대사관 산하 기관, Morrow Batteries(노르웨이) 등
- 주요내용 :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동향 및 밸류체인 단계별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지원
- 신청방법 : 무역투자24 온라인 신청 접수([클릭](#))
- 신청기한 : '23.3.9(목)까지 (현장 신청도 가능하나 제한된 좌석으로 사전 신청 권장)

■ [투자조사단] 미국 반도체 분야 투자조사단 모집

- 美 현지 진출 세미나 및 진출 상담회, 기 진출 기업 면담 및 제조시설 시찰, 잠재 투자진출지역 시찰 등 활동

- 일시/장소 : 3.27(월)~3.30(목), 3박 4일 /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市, 테일러市, 카일市 등
- 참가규모 : (국내) 10~15개사, (정부) 텍사스 주 및 시 정부, (진출기업) 이엔에프테크놀로지社, 아이마켓코리아社
- 세부 프로그램 :

프로그램	주요 내용
투자진출 지원 세미나 및 상담회, 분야별 1:1 면담	① 투자진출지원 세미나 및 상담회 ▪ 주요내용: 美 투자진출 전문가 주제발표 및 분야별 개별면담 ▪ 일시/장소: 3.28(화), 10:00-16:30/ 텍사스주 오스틴市 호텔 ② 투자진출 분야별 1:1 면담 ▪ 대상기업: 개별 기업이 계획하는 진출 계획을 기 제출한 기업 ▪ 일시/장소: 3.28(화), 10:00-16:30/ 텍사스주 오스틴市 호텔 ▪ 협력기관 및 기업 개요: 법률(Nelson Mullins), 회계/세무(LEK Partners), HR(Worldlink), 부동산(Savills)
기 진출기업 면담 및 제조시설 시찰	▪ 주요내용: 텍사스주 기 진출기업 방문 및 진출 노하우 공유 ▪ 일시/장소: 3.29(수), 10:00-11:30/ 오스틴市, 카일市 ▪ 방문기업: 이엔에프테크놀로지社
잠재 투자진출지역 시찰	▪ 주요내용: 삼성오스틴반도체 테일러 공장 인근 산업단지 조성부지 시찰 ▪ 일시/장소: 3.29(수), 13:30-15:30/ 테일러市 ▪ 방문기업: 아이마켓코리아社

- 신청방법 : 링크([클릭](#)) 또는 QR코드로 사업 신청서 작성
- 신청기한 : '23.3.10(금)까지
- 문의처 : KOTRA 투자 MnA팀 (☎02-3460-3247)





GVC 인사이트 제50호 발간 기념 이벤트 안내

◆ 독자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가 2022년 3월 3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50호를 맞이하였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기념하고자 후기 작성이벤트로 상품을 전달 드리고 후기 중 일부를 선정하여 50호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후기 이벤트 바로가기 : [글로벌공급망인사이트 후기 이벤트 \(클릭\)](#)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50호 발간 기념 이벤트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후기 작성 이벤트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가 50호 발간을 맞았습니다.
뉴스레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총 30분을 선정하여 경품을 드립니다.

참여기간

~ 3월 16일 (목) 까지

참여방법

작성하러가기 버튼 클릭 후 설문 응답

당첨자 발표

3월 23일 (목), 개별통보

작성하러가기

이벤트 당첨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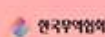
- 1 치킨 쿠폰 (2만원 상당, 5명)
- 2 커피 쿠폰 2장 (1만원 상당, 10명)
- 3 커피 쿠폰 1장 (5천원 상당, 15명)



선정된 후기 중 일부는 50호(3.23 발간)에 게재될 예정이며, 홍보목적으로 언론보도, SNS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경제지표('23. 3. 8. 수)

[환율]

	'21말	'23.1말	'23.2말	3/3	3/6	3/7	전일비	22말비
₩/U\$	1,188.80	1,231.90	1,322.60	1,301.60	1,296.90	1,299.40	0.19	2.76
선물환(NDF, 1월물)	1,190.00	1,231.10	1,322.20	1,299.70	1,295.00	1,298.00	0.23	2.58
₩/CNY	186.51	182.51	190.72	188.89	187.60	188.01	0.22	3.62
₩/Y100	1,032.48	946.01	970.50	953.76	954.73	956.14	0.15	1.12
Y/U\$	115.14	130.22	136.28	136.47	135.84	135.90	0.04	1.62
U\$/EUR	1.1318	1.0837	1.0585	1.0616	1.0636	1.0682	0.43	0.61
CNY/U\$	6.3681	6.7521	6.9411	6.8972	6.9160	6.9378	0.32	△0.36

* '22년 평균 환율: (₩/U\$) 1292.2원, (₩/¥100) 983.8원 / *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 1264.8원, (₩/¥100) 957.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3.6(전일)	'23.3.7			
					전일비(3.6)	'22년최저比	'22년말비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84.11	84.60	0.5	12.8	5.8
					0.6%	17.8%	7.4%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25.35	128.00	2.7	48.5	10.7
					2.1%	61.0%	9.1%
비 철 금 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8,819.00	8,824.00	5.0	1824.0	437.0
					0.1%	26.1%	5.2%
					△9.0	232.5	△48.0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321.50	2,312.50	△0.4%	11.2%	△2.0%
					△490.0	4860.0	△6465.0
니켈	19,100.00(7.5일)	30,425.00	24,450.00	23,960.00	△2.0%	25.4%	△21.2%

[반도체]

	'21	'22	'22.12월	'23.1월	'23.2월	3/2	3/3	3/6	3월(~6)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2.05	1.93	1.83	1.77	1.76	1.75	1.77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9.9	△23.0	△40.3	△48.2	△52.9	△54.5	△54.7	△55.0	△54.1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53	6.51	6.46	6.45	6.45	6.45	6.45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4.7	10.7	△12.4	△13.7	△15.5	△18.1	△18.1	△18.1	△18.3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23.2.10	2.17	2.24	3.3		
							전주(2.24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1107.55	995.16	974.66	946.68	931.08	△1.6%	△81.6%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2.13	2.20	2.24	3.3	3.7		
								전일(2.24비)	'21년말비
BDI	2217	1515	616	552	883	1211	1298	7.2%	△41.5%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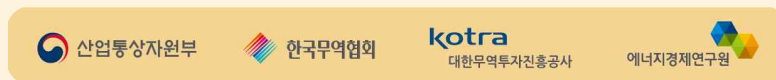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하단 URL 또는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제작기관



협력기관

